

도호 텍스타일의 멀티 카운트사 “칵테일”이 잘 팔려

도호 텍스타일(東邦 Textile)의 멀티 카운트사 “칵테일(Cocktail)”은 최신에 컴퓨터 장치와 방적 기술을 살려 만든 얼룩 실이다. 일반적인 슬럽(slub)사는 임의의 일정한 베이스(base) 변수에 슬럽을 만들어 붙여 주고 있는데, 멀티 카운트사는 베이스 실의 변수와 길이를 자유롭게 변화시켜 부분적으로 여러 다른 카운트로 되어 있다. 컴퓨터 제어로 베이스 실의 굵기나 가늘기의 정도 또는 굵은 부분이나 가는 부분의 길이가 자유롭게 설정되어 다양한 표정을 만들 수 있다. 염색 가공이나 세탁 가공 등의 후가공에서 중고감(中古感)이나, 염색물의 색이 살짝 빠진 느낌을 나타내는 표현도 할 수 있다.

생산 설비는 2003년에 4대 증설함으로써 현재는 도합 14대가 되었으며, 그동안 데님용 태번수를 중심으로 생산해 오고 있는데, 2004년 춘하절용부터 외의용 니트감인 저지(jersey)용 세번수도 판매하고 있으며, 8~60수까지 구색을 맞추고 있다. 이외에도 아크릴·면이나 아크릴·면·레이온 등의 복합 소재도 확충해 갈 예정이다. 이 소재는 3년 전부터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매년 판매량이 30%씩 증가하고 있다. ♣